

많습니다. 그래서 퇴임 이후 다시 평소 했던 일과 관련되는 업종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늙었다고 62세 전에 냉혹하게 몰아내는 경쟁 사회는 아직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노후를 걱정하면서 일자리 찾으려고 돌아 다니는 무책임한 사회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리 선생님은 저의 후배의 아버님으로 1년에 1~2회정도 상견례가 있는 사이입니다. 리 선생도 저는 친분이 있어서 가끔 병원에 들러서 건강 상담을 받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한국 형님 ! 병원에 계시나요?”

“쇼리이군.......병원에 있네”

“그러면 저와 아버님이 오후 2시에 방문 하겠습니다”

“알겠네....언제든지 환영하네”

중국 중의 병원의 특징은 점심시간이 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의의 원칙은 “양생=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무조건 오침을 할 수 있는 2시간의 점심시간을 줍니다. 대형 중의병원(대학병원 규모)에 가도 동일하게 관리를 합니다. 저 또한 30분간 “장자와 공자”님들을 만나는 맛깔스러운 오침을 즐기고 일어나서 오후 진료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병원에 도착 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면 되나요?”

“올라오세요”

리씨 가족과는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가지고 들어오는 녹차 잔을 앞에 놓았습니다. 반가운 얼굴과 다르게 이